

쥬이박스 신간 소개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발행일 : 2016년 6월 20일

지은이 : 정신실

판 형 : 150x210 / 208쪽

ISBN : 978-89-421-0373-7 03230

가 격 : 15,000원

문 의 : 김재준 간사(010-7238-9942)

책 소개

하늘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일상이다

‘땡땡땡 땡따라라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여기저기서 못 찾아 안달이다. 조용히 묵상 좀 해볼라치면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의 성화에 정신이 쏙 빠진다. 늘 강직할 것만 같던 어머니의 수술 앞에 이쪽 가정에선 딸이지만 저쪽 가정에선 며느리이기에 마냥 이기적일 수도 없다. 목회자의 아내이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싱크대 앞, 사유의 지평이 열리는 공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따리 일상이 가벼워지는 곳, 하이힐과 정장을 벗어 던지고 반바지에 티셔츠 한 장이면 훌륭한 이 곳, 싱크대 앞은 저자의 성소(聖所)다. 저자는 이 ‘솔뚜껍 운전수’의 자리를 사랑한다. 노동이나 노력이 ‘공로’가 되지 않을수록 본래의 나와 더 가까운 법. 저자는 이런 자기만의 비밀 신공이 깃든 싱크대로 흔쾌히 초청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도 무거운 짐 한 보따리 내려놓으시라고. 초대받은 독자들은 저자의 성소에서 손바닥만 한 다육이 식물도 깊은 안도감으로 감싸 안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 겨울, 봄, 다시 찾아온 여름

이 책은 저자의 단편적 일상들이 각 계절로 나뉜 네 개의 부를 통해 소개된다. 나에게도 있을 법한 일, 마음속에만 담아 두어 뭐라 꺼내야 할지 모르던 저 심연의 소리들이 저자를 통해 다

시 회자된다. 한 사람의 그저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이리도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청포도 한 움큼 쥐어 얼음 몇 개와 함께 믹서에 돌린다. 인위적이지 않은 시원한 맛에 지금이 여름이구나 싶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나의 일상을, 나조차 의미 두지 않던 한여름의 어느 날을 기록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에서 진짜 깊이 있는 묵상, 영원에 잇댄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건 저자의 성소에 초대받은 우리도 더불어 누리게 될 기쁨이랄까.

_이런 분들에게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을 권합니다.

- 밥은 매일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새댁에게
- 소란스러운 아이들 틈에서 가사에 힘쓰는 주부에게
- 바깥일 하라 집안일 하라 몸이 열 개여도 모자란 워킹 맘에게
- 부쩍 주름이 많아진 부모님을 바라보는 딸에게
- 편한 듯 편치 않은 시부모님과 정을 나누는 며느리에게
- 성도도, 목회자도 아닌 자리에서 신앙하려 힘쓰는 교회 사모님에게
- 그리고, 일상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이 땅의 모든 아줌마에게

지은이 소개

정신실

발달 장애 아이들의 비밀 같은 마음에 노래로 노크하는 음악 치료사로 시작하여 사랑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연애 강사가 되었다. 나답게 사는 행복한 삶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어 마음과 영적인 성숙에 관해 다양하게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심리와 기독교 영성 사이 '다리 놓는 자'가 되고자 공부하며 강의하고, 강의하며 배우고 있다.

'신의 피리'라 불리는 김종필의 아내 됴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두 아이 채윤이와 현승이에겐 웃기고도 무서운 엄마이다. 말에서 마음을 듣는 귀, 일상에서 영원을 발견하는 눈을 선망하며 커피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글 쓰는 오늘을 산다.

일상을 영원에 잇대어 정붙이고 살다 덜컥 책 넷을 낳았다.

《오우연애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연애를 주옵시고》

《와우결혼 : 와서 보라 우리의 결혼을》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에니어그램》

그리고 이 책,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차례

들어가는 글

가을

- 1장 일상愛 천상에
- 2장 아버님의 소주잔
- 3장 이야기 정거장1
- 4장 사모이기 전, 인간
- 5장 내 인생 단 한 번의 수련회
- 6장 닌텐도 고민
- 7장 엄마의 미안한 육체

겨울

- 8장 '아직도 가야 할' 엄마의 길
- 9장 내 아들의 일기를 목상함
- 10장 기도보다 울컥한 따신 밥 한 끼
- 11장 레위인 콤플렉스
- 12장 누구를 위하여 성탄의 종은 울리나
- 13장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 14장 육적인 인간, 영적인 커피에 상처받다

봄

- 15장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 16장 딸의 입학식에 꺼내 본 오래된 일기장
- 17장 잃어버린 노래, 어린이 찬송
- 18장 질문, 의문, 좁은 문
- 19장 이야기 정거장2- '아롱지고 다롱지다'
- 20장 5월 5일과 8일, 둘 사이에 끼였으니
- 21장 주름 자글자글 여대생들

여름

- 22장 사춘기, 사추기
- 23장 나의 페이스북 회심기
- 24장 밥하는 아내, 신문 보는 남편
- 25장 나의 성소, 싱크대 앞
- 26장 어느 모태 바리새인의 회심
- 27장 기도의 길을 찾아서
- 28장 이 거룩한 현재